[새봄 기층 탐방]

장춘, 정월대보름 윷놀이로 민족의 정 다지다

2월 12일, 제5회 장춘시 조선족 정월대보름 맞이 전통윷놀이대회가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에서 진행되였다.

장춘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과 장춘시민족사무위원회에서 지도하고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인 '윷놀이'를 전승하고 널리 고양하며 군중문화생활을 한층 풍부히 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며 즐겁고 화목한 명절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행사는 열렬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였다.

'정월대보름을 경축하며 민족의 정을 다지자(欢庆元宵节 共筑民族情)'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30개 팀),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4개 팀), 장춘조선족녀성협회(12개 팀), 장춘시조선족기업가협회상회(1개 팀), 장춘시조선족사회과학사업가협회(3개 팀), 재장춘 조선족학교(6개 팀), 영순(永顺)사회구역(2개 팀), 길림신문사(1개 팀) 등 단위와 사회단체 및 학교의 책임일군으로 무어진 근 60개 대표팀의 300명 선수가 참가해 대회 우승을 놓고 치렬한 윷놀이판을 벌였다.

행사에서 전통 윷놀이의 치렬한 대결뿐만 아니라 조선족 문화의 전시와 체험까지 즐길 수 있어 '격정빙설, 행복장춘'(激情冰雪 幸福长春)의 활동 내용을 충분히 반영했다. 조선족 전통복장을 곱게 차려입은 참가자들은 화목하고 단합된 축제의 분위기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오전 8시 30분, 행사는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 리상호 관장의 축사에 이어 새로운 한해에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예술관 전체 직원들의 새해 인사로 막을 올렸다. 사회자가 PPT를 통해 경기 규칙과 대진표를 상세히 설명했다.

윷놀이판은 예술관의 두개 다기능실에서 동시에 펼쳐졌다. 5인 1팀으로 팀내 한명이 말을 움직이고 네명이 윷가락을 던졌다. 추첨 번호에 따라 4개 팀씩 한조를 이루어 경기를 치르고 탈락전을 거쳐 상위 두 팀이 진급하는 방식으로 도합 5라운드를 진행했으며 경기 제도표를 기준으로 했다.

재장춘 여러 사업단위와 조선족 사회단체 책임자들이 윷모형을 던지면서 대회의 시작을 알린 가운데 행사는 박진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였다. 경기중 선수들은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뛰여난 기술과 단합 정신을 보여주었으며 관객들은 선수들에게 박수와 함성을 보내며 현장은 뜨겁고도 즐거운 명절 분위기로 들끓었다.

치렬한 경쟁 끝에 대회는 최종적으로 1등상, 2등상, 3등상, 4등상 각각 1개와 5등상 4개, 6등상 8개, 7등상 16개 그리고 참여상 32개를 선정하고 주최측이 준비한 푸짐한 상품들을 현장에서 발급했다.

이번 윷놀이대회는 단순한 경기를 떠나서 전통문화의 전승 현장이였다.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조선족의 전통 놀이와 문화를 리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였다. 행사는 또한 민족단결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며 '중화민족 한가족'의 깊은 의미를 보여주었다.

한편, 주최측은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세부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했다. 대회 전날에는 회의를 열어 각 팀 련락원들에게 소조 추첨과 경기규칙을 설명했고 행사 당일에는 탈의실, 생수, 도시락 등을 제공했으며 참가자들에게 장소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하여 행사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확보했다.

제5회 장춘시 조선족 정월대보름 전통윷놀이대회가 환호와 웃음 소리 속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치렬한 각축을 거쳐 이도구조선족로인협회 3팀이 우승을,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 2팀이 준우승을, 제1자동차조선족로인협회 1팀이 3등을, 경제개발구조선족로인협회 1팀이 4등을 차지했다.

/글 오건기자
/사진 류향휘 김명준 손맹번 주동 기자

사평시 조선족 로인들, 대보름 윷놀이 펼쳐

2월 11일, 사평시조선족로인협회 활동실에서는 정월대보름 맞이 윷놀이 행사가 진행되였다.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인 '윷놀이'를 전승하고 고양하며 조선족 로인대중들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며 즐겁고 화목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취지를 둔 이날 행사에 사평시민족사무위원회에서도 사업일군을 파견해 축복을 전했다.

60여명의 회원들은 조선족 전통의상을 곱게 차려입고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 준비위원회는 로인협회 회원중 80, 90세 이상 로인들을 고려해 그들이 윷을 던질 때 될수록 가름대와 가까운 곳에서 던지게 함으로써 윷이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별대우'를 했다.

행사장에 울려퍼지는 "도야", "모야!" 응원소리는 새해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리기를 기원하는 회원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있었다.

사평시조선족로인협회 회장 신중근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새해에도 전체 회원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며 회원들이 협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글 김홍철특약기자
/사진 최정옥 리금단 문금숙

'80후' 로인들, 발해만에서 추억 이야기 모임을

2월 11일,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감정자분회는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에서 '뜻있고 즐거운 여생을 살아가자'를 취지로 '추억 이야기 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14명의 80세 이상 고령 로인이 참석했다.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집행회장 지명화는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초심을 잊지 말고 자체 사업을 잘하는 한편 후대 양성과 사회공익활동에 적극 뛰여들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료녕성 무순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밤낮으로 사업하다 보니 건강악화로 쓰러지기도 했었다."며 "지금 회상하면 그때의 초심이 밑거름이 되여 대련에 와서도 10여년간 로인협회 회장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감정자분회의 전임 회장 김태옥이 선참으로 발언했다.

이어 박도근로인이 들려준, 지난 세기 60년대 료녕성 왕청문중학교에서 근무할 때 리춘명이라는 교원이 있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10여리 길을 헤치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집까지 데려다준 이야기, 1958년 연변 1중에서 고중을 졸업하고 대학입시를 위해 만단의 준비를 했지만 뜻밖의 원인으로 대학입시에 불참하게 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가 스스로 고민의 늪에서 헤여나와 자기만의 삶의 길을 개척해나간 전은화의 눈물겨운 이야기, 일생동안 생활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임무를 끝까지 완수했다는 조영학의 이야기, 1965년 7월 고중을 졸업한 후 사회주의교육운동공작대에 뽑혀 농촌에 내려가 농민들과 함께 논김을 맬 때 벼와 참돌피를 가려내지 못한 채 마구 흙탕물을 일구며 앞으로 나가다가 한 로빈농이 욕 한마디 없이 농사기술을 알려주어 얼굴이 홍당무우가 되였다는 리삼민의 이야기…

참석자들은 저마다 힘써 학습하여 관념을 갱신하고 새로운 리념으로 로인사업의 새 장을 써내려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리삼민특약기자

연길시 각 사회구역, 다양한 정월대보름축제 펼쳐

2월 12일 연길시 하남가두 백국사회구역, 정월대보름 활동을 맞아 탕원을 맛보고 있는 주민들. /연길시당위 선전부 제공

며칠 사이 연길시 여러 가두, 사회구역은 다양하고 풍부한 정월대보름축제 행사를 펼쳐 전통문화의 매력을 느끼게 했다.

공원가두 원예사회구역에서는 '정월대보름 맞이·문화 전달, 사회구역의 화합, 행복의 새로운 악장 연주' 활동을 펼쳤는데 60여명의 리퇴직간부당지부 당원, 관할구역내 화교와 그 가족,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공원가두 원미사회구역은 연변위업식품유한회사, 연길시지적장애인친우협회, 연길시별들의집, 연변사랑의비꽃공익협회와 련합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월대보름을 맞이하고 중화의 정 돈독히' 주제활동을 펼쳐 '조화롭고 화목하며 함께 모이고 결집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북산가두 단홍사회구역에서는 관할구내 어린이들의 방학생활을 풍부히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즐거운 명절' 정월대보름 활동을 전개했다. 사회구역 사업일군은 영상을 통해 정월대보름의 유래 등 지식을 소개하여 아이들이 전통민속을 깊이 료해하도록 했다. 이날 활동에서 모두가 합심하여 원소를 만들어 맛보았다.

하남가두 백풍사회구역에서는 '정교한 솜씨로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고 함께 초롱을 만들어 정월대보름 맞이' 활동을 펼쳤다. 사업일군들은 아이와 부모들에게 활동 및 초롱의 상징적 의미를 소개하고 아이들이 직접 초롱을 만들게 했다. 한시간 남짓이 지나서 알록달록한 금붕어 모양의 초롱이 명절에 대한 아이들의 기대를 담아 완성되였다.

신흥가두 민안사회구역에서는 애심연변공익협회와 함께 '우리의 명절 정월대보름' 주제활동을 벌였다. 주민들은 환경미화원과 함께 초롱을 만들고 수수께끼를 맞추고 윷놀이를 즐기면서 현장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건공가두 연성사회구역의 '즐거운 정월대보름 모임' 활동 현장에서 사회구역 사업일군과 주민들은 함께 정월대보름의 유래에 대한 짧은 영상을 시청하고 전통문화 지식을 배웠으며 직접 초롱을 만들었다. 주민들은 저마다 다른 착상을 펼치면서 모양이 가지각색인 초롱을 만들었다. 이어 경극, 무용 등으로 꾸며진 재능 표현이 펼쳐졌는데 특히 로인들이 선보인 부채춤은 활력이 넘쳤다.

진학가두 문경사회구역에서는 관할구역내의 애심상가들이 주민들에게 선물과 건강지식 보급 선전수첩을 전달하고 사회구역당총지서기가 주민들에게 명절의 축복을 전했으며 가두당사업위원회 책임자가 환경미화원들에게 '도시수호자훈장'을 수여했다. 현장의 활동은 이웃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사회구역의 온정을 느끼게 했다.

/연변일보

북산가두 주민들, 정월대보름 활동 활발히

2월 11일, 연길시 북산가두에서는 음식 만들기, 윷놀이, 색종이 접어 초롱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조직하여 군중들이 즐겁고 상서로운 분위기 속에서 전통문화의 매력을 만끽하고 함께 명절을 즐기게 했다.

북산가두 산하 여러 사회구역의 주민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아 직접 만든 특색 음식을 맛보았다. '홍석류' 자원봉사자들은 독거로인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로인과 환경미화원들에게 원소를 전해드렸다. 단령, 단춘 사회구역은 색종이로 초롱을 만들고 원소와 특색비빔밥을 직접 만들어 함께 식사를 하고 흥겨운 노래소리에 맞추어 현장에서 춤을 추면서 정월대보름을 경축, 여러 민족 대중들의 두터운 우정을 보여주었다.

이날 단화사회구역에서는 남녀로소 함께 모여 명절을 보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정월대보름의 유래, 문화풍습을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중국의 전통 명절에 대해 더욱 깊이 료해하도록 했다. 또 초롱을 직접 만들고 정월대보름에 대한 상식 알아맞추기 유희를 조직했다. 흥미진진한 알아맞추기는 모두의 참여를 이끌었고 어르신과 아이들은 번갈아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으며 매번 정답이 밝혀지면 박수소리, 틀리면 웃음소리로 모두를 즐거운 분위기에 푹 빠지게 했다.

북산가두의 정월대보름 경축행사는 여러 민족 주민들이 민족전통의 매력을 더욱 잘 느끼게 하였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동질감과 소속감을 한층 더 증강시켰다.

/리성복특약기자